

“<과학자의 길>, 함께 걸으실래요?!”

2차 표지판 제막식 개최

- 15일(화)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앞에서 2차 표지판 제막식 열려
- ‘과학도시’ 광주 랜드마크化... 지스트 제안으로 첨단단지 내 7km 산책로 조성



▲ 광주 첨단과학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과학자의 길 표지판 제막식이 15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렸다.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. (사진 오른쪽에서 4번째 김영집 대외부총장)

광주 첨단과학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가 제안한 <과학자의 길>의 2차 표지판 제막식이 6월 15일(수)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렸다.

이날 제막식 행사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주최로 광주과학기술원, 광주테크노파크, 한국광기술원 등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과학기술 유관기관 11곳이 참여하는 ‘과학자의 길 조성 추진위원회’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.

<과학자의 길>은 지스트를 비롯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산학연 기관들이 협력해 광주 첨단과학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시민들이 과학을 일상처럼 느끼며 소통하고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책로이다.

앞서 ‘과학자의 길 조성 추진위원회’는 지난 1월 17일 <과학자의 길> 1코스의 첫 안내표지판을 지스트 정문 앞에 설치했으며, 이날 행사를 통해 두 번째 표지판을 설치했다.

산책로 제1코스는 [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→ 국립광주과학관→ 한국산업단지공단→ 광주테크노파크→ 한국광기술원→ 광주과학기술진흥원→ 광주시민의 숲→ 광주첨단 과학국가산업단지→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→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권본부→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센터→ 광주디자인진흥원→ 쌍암공원→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]에 도달하는 총 7km의 코스이다.

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추가 코스를 순차적으로 개발해 <과학자의 길>을 확장할 계획이다.

이날 행사는 박성수 과학자의 길 추진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, 문인 북구청장의 축사,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의 경과보고, <과학자의 길> 표지판 제막식 및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.



▲ 광주 첨단과학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과학자의 길 표지판 제막식이 15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렸다.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.

(주요 참석자: **박성수**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(추진위원장), **김영집** 지스트 대외부총장, **신용진** 한국광기술원장, **김선민** 광주테크노파크 원장, **송진희** 광주디자인진흥원장, **황상현**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, **이길행**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분원장, **이상법**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, **정채환**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, **유진혁** 광주연구개발특구 본부장, **윤석구**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, **서용규** 광주시의원 당선자 및 **이숙희** 광주 북구구의원 당선자 포함 시·구의원 당선자 전원)

<과학자의 길>을 제안한 김영집 대외부총장은 "참여 기관과 협의해 많은 학생과 시민이 <과학자의 길>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"며 "오는 8월 한국광기술원 앞에 3차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요 지점별 추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<과학자의 길>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